

한전, 조직 전면개편 등 강도 높은 경영혁신 단행

- 금년 9월중 독립사업부제 등 내부경쟁체제 도입 -
- 고객중심의 업무프로세스 개편 등 혁신성과의 대국민 환원 -

정 춘 택 한국전력공사 구조조정실 사업부제추진팀 과장

- 한국전력은 '04년 3월 한준호 사장 취임이후 경영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국 내외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.
- 한전은 국제적으로 에디슨전기대상, 세계 수요관리대상을 수상했고, 국내적으로 고객만족도 7년연속 1위, 공공기관혁신 최우수기관, 정부경영평가 연속 최상위('04년 1위, '05년 2위)를 달성하였습니다.
- 그러나,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 종합에너지그룹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 방안을 도입하고, 대외적으로 전력산업의 경쟁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.

혁신내용

- ◇ 9개 사업소의 독립사업부제 우선 시행 등 내부 경쟁체제 구축
- ◇ 혁신적인 사업소 팀제 도입, 권한위양 대폭 확대, 자율재산등록 등 대적 경영혁신 추진
- ◇ 구역전기사업 활성화, 전력 직접구매 확대, 민간 판매사업자 진입 허용 등 경쟁 확대에 따라 민간기업과의 경쟁 적극 참여

전력산업 구조

- 한전은 '05년 1월부터 '06년 6월까지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, 내부경쟁 촉진과 경영혁신을 위한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고, 본사조직 재편과 사업부 팀제 도입, 직군간 교차보직 확대 및 1직급 자율재산등록 등으로 경영체질을 개선합니다.
- 또한, 전력 직접구매 확대, 신도시 신규판매사업자 허가 등 판매분야에서의 경

쟁촉진 요구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,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확대합니다.

□ 특히, 독립사업부제 도입은 노사정간 상생협력의 대표적 모범사례로서, 경영효율성 향상 및 기업가치 제고 기여로 국내외 투자자 및 고객의 신뢰를 강화할 것입니다.

- 전력산업구조와 관련하여,
 - 한전은 '01년 4월 발전부문을 6개 발전회사(화력 5개사, 수력원자력 1개사)로 분할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.
 - 배전부문은 노사정위원회가 전기의 특수성과 과점폐해로 전기요금 상승 및 공급불안이 우려되고 기대편익이 불확실하다며 배전분할 추진 중단 및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권고('04년 6월)함에 따라 이번에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.

독립사업부제 방안

□ 독립사업부제는 전력산업을 변화시키는 중대사안이므로 단계적 추진으로 전면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, 효과를 검증한 후 최적의 사업부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.

- 독자적 경쟁규모(고객호수 100만 이상)를 갖춘 9개 지사에 사업부를 우선 도입 하고 나머지 7개 지사는 현 체제를 유지해, 일정기간(2년간) 추진 후 성과분석을 통하여 사업부 확대 등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추가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

- 사업부는 자율적인 운영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, 독립회계 및 성과평가강화로 CEO와 직접

경영계약을 체결하는 분권화된 조직으로 운영됩니다.

경영 혁신

□ 또한, 본사 및 사업부 조직을 혁신하고, 고객지향의 최신 IT시설을 구축하여 고객만족과 경영혁신을 극대화하도록 개편합니다.

- 본사는 사업부 현장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경쟁력을 제고토록 개편하고, 사업부 조직은 현재의 수직적 부, 과 체제에서 수평적 팀 체제로 전환하며, 권한을 대폭 위양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할 예정입니다.
- 그리고, 고품질 전력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IT형 배전사령실을 구축하고 담당구역의 광역화도 추진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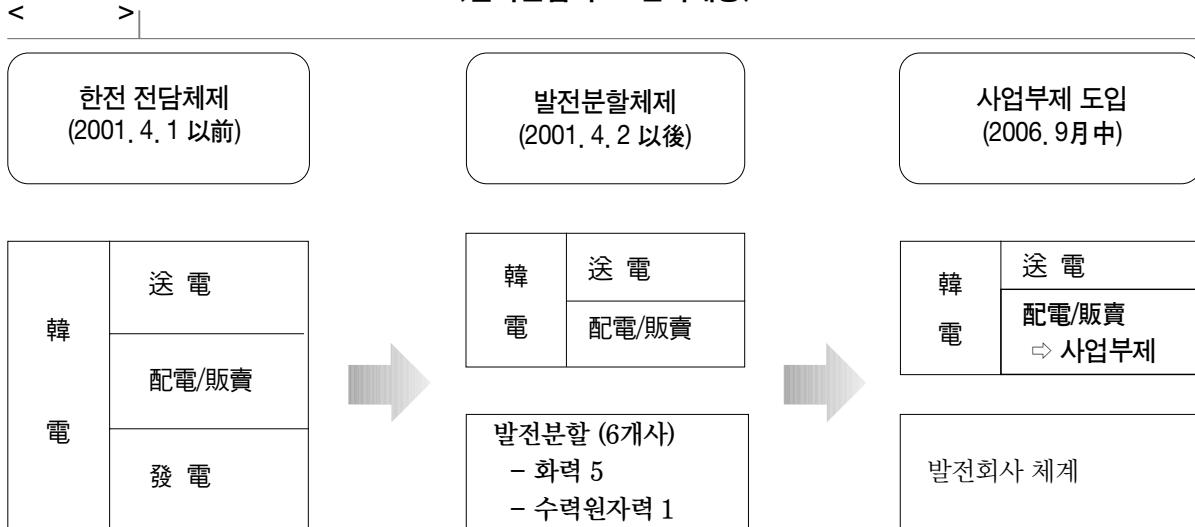
경쟁 도입 확대 방안

□ 사업부 비용의 74%를 점유하는 구입전력비에 대하여 각 사업부가 계량 데이터를 활용한 전략적 수요관리를 통하여 비용절감 경쟁을 적극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.

□ 특히, 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(현행 5만kW→3만kW)하여 민간부문과의 경쟁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.

- 정부는 중장기 전략과제로 민간 배전?판매사업자 신규진입 허용, 구역 전기사업자의 과부족 전력구입을 전력거래소로 일원화 등을 추진할 예

<전력산업 구조 변화내용>



정입니다.

기대 효과

□ 사업부의 독립재무제표로 객관적인 경영실적을 산출하고, 성과평가에 비용절감 평가요소를 확대하여 사업부별 경영혁신과 원가절감 경쟁의 유도가 가능합니다.

- 구입전력비 절감과 전기판매수익(사업부 수익의 98%) 증대를 위한 경영혁신기법이 도입되고 확대될 것입니다.

□ 그리고, 사업부 경영효율 증대를 위해 예산, 인적자원 등 각종 경영재원 운영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게 됩니다.

- 예산집행 및 투자계획시 산출과 효과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고, 인적자원 확보와 개발에 대한 경쟁 확대가 전망됩니다.

□ 사업부제 도입과 함께 본사와 사업소 조직의 효율적 재편, 권한위임의 확대 및 경쟁마인드 강화 등 전사적 경영혁신 의지를 확산할 수 있는 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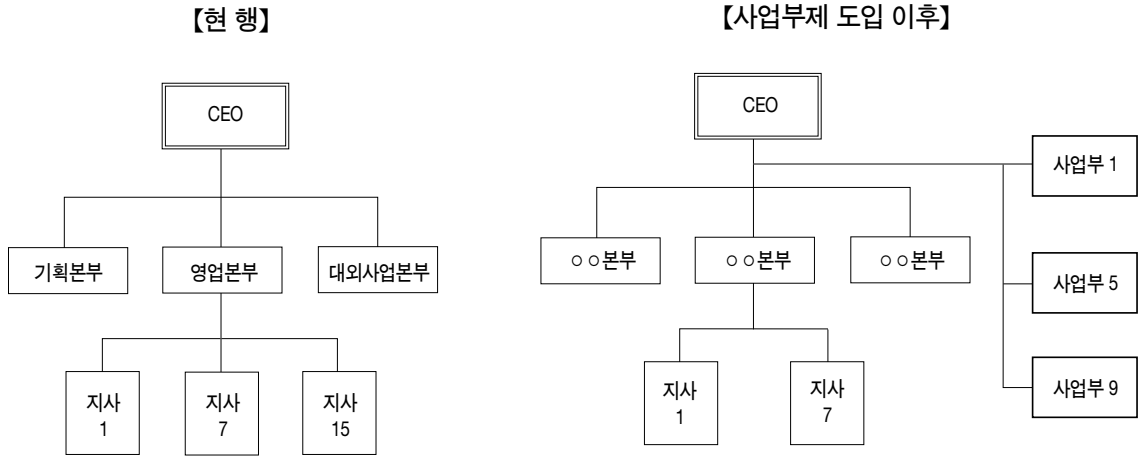
- 사업부제, 팀제 등 조직내 새로운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사업부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혁신성과 도출이 기대됩니다.

□ 이러한 경영혁신에 의한 내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 전력사업 역량은 크게 강화될 예정입니다.

□ 또한, 판매수입 등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소에 대한 관리활동이 강화됨으로써 정전사고 감소와 대고객 서비스는 향상됩니다.

□ 결과적으로, 전력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체제 확대로 고객선택권은 강화되고 부가서비스 창출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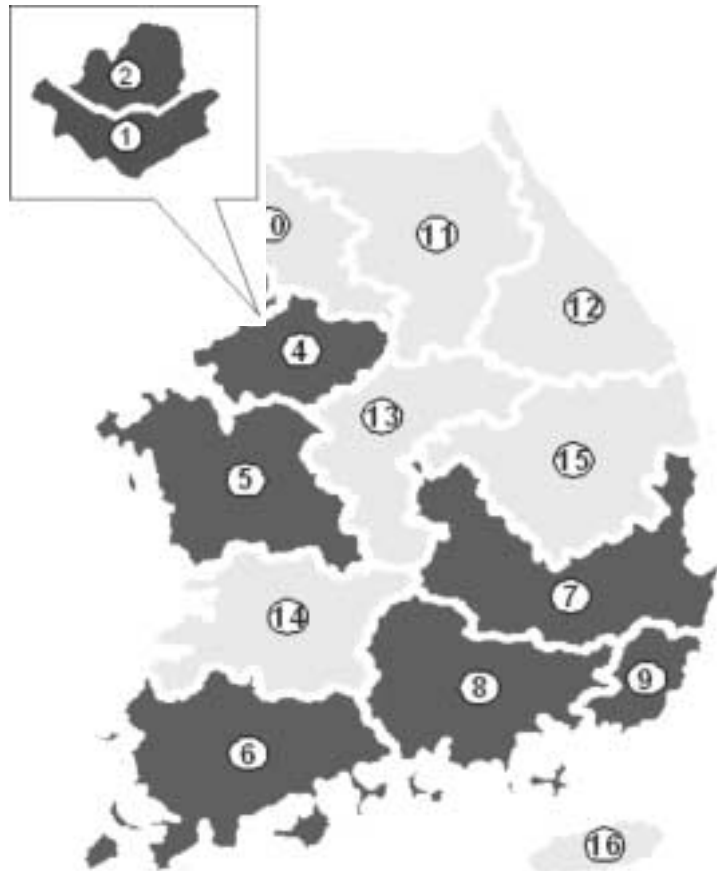
〈한전 조직구조 변화내용〉



〈'9개 독립사업부' 및 '7개 지사' 관할 지역〉

9개 독립사업부		
① 서울남	② 서울북	③ 인천
④ 경기	⑤ 충남	⑥ 전남
⑦ 대구	⑧ 경남	⑨ 부산

7개 지사		
⑩ 경기북	⑪ 강원	⑫ 강릉
⑬ 충북	⑭ 전북	⑮ 경북
⑯ 제주	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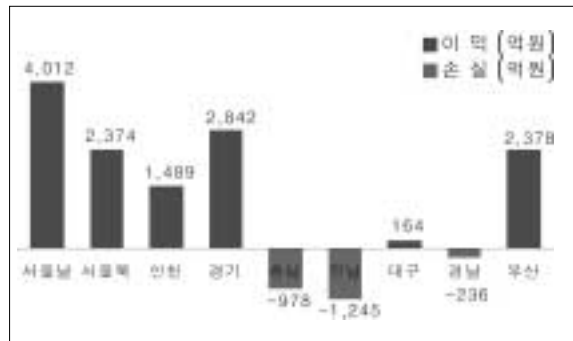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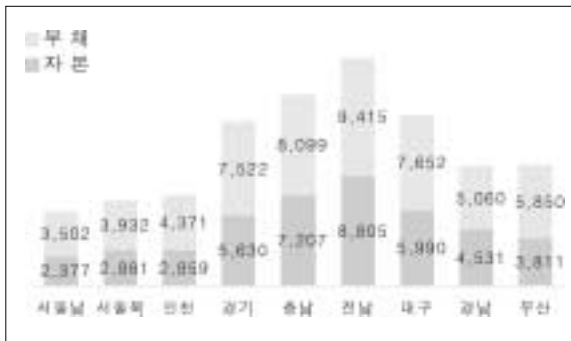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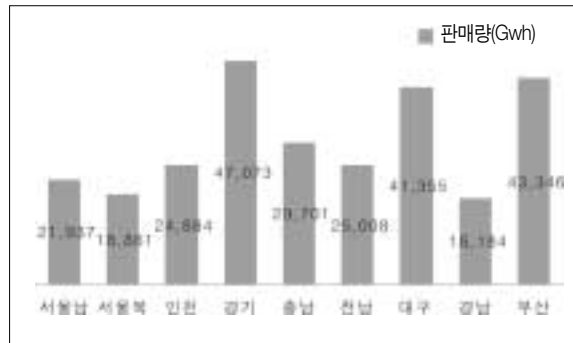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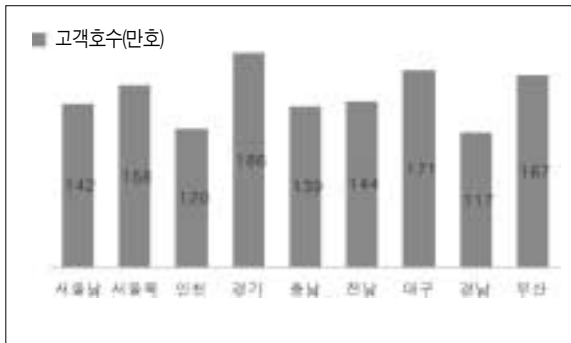
〈9개 독립사업부 경영재원〉

('05년말 기준, 재무사항은 '04년말기준 회계분리 결과)

구 분	고객호수 (만호)	판매량 (GWh)	지점수 (개)	자 산 (억원)	수 익 (억원)	비 용 (억원)	손 익 (억원)
① 서울남	142	21,937 (6.6%)	5	5,879	19,787	15,775	4,012
② 서울북	158	18,861 (5.7%)	7	6,813	17,340	14,966	2,374
③ 인 천	120	24,884 (7.5%)	8	7,230	18,835	17,346	1,489
④ 경 기	186	47,073 (14.2%)	14	13,512	32,300	29,458	2,842
⑤ 충 남	139	29,701 (8.9%)	16	15,306	18,604	19,582	-978
⑥ 전 남	144	25,008 (7.5%)	24	18,220	16,628	17,873	-1,245
⑦ 대 구	171	41,355 (12.4%)	17	13,642	27,291	27,127	164
⑧ 경 남	117	18,894 (5.5%)	17	9,591	12,603	12,839	-236
⑨ 부 산	167	43,346 (13.0%)	11	9,661	29,783	27,405	2,378
사업부계	1,344 (77.6%)	270,349 (81.3%)	119 (67.4%)	99,494 (70.2%)	193,171 (82.0%)	182,371 (79.7%)	10,800 (157.2%)
지 사 계	388 (22.4%)	62,064 (18.7%)	56 (32.6%)	42,326 (29.8%)	42,526 (18.0%)	46,455 (20.3%)	-3,929 (-57.2%)
계	1,733	332,413 (100%)	175	141,820	235,697	228,826	6,871

※ 지사(7개) : 경기북, 강원, 강릉, 충북, 전북, 경북, 제주

〈7개 지사 경영재원〉



〈7개 지사 경영재원〉

('05년말 기준, 재무사항은 '04년말기준 회계분리 결과)

구 분	고객호수 (만호)	판매량 (GWh)	지점수 (개)	자 산 (억원)	수 익 (억원)	비 용 (억원)	손 익 (억원)
① 경기북	81	14,671 (4.4%)	8	8,184	11,015	10,518	497
② 강원	38	4,702 (1.4%)	7	4,747	3,221	3,859	-638
③ 강릉	38	8,683 (2.6%)	9	4,102	5,412	6,104	-692
④ 충북	75	14,473 (4.4%)	10	6,667	9,299	10,159	-860
⑤ 전북	87	13,593 (4.1%)	12	9,631	9,127	10,038	-911
⑥ 경북	43	3,174 (1.0%)	9	4,763	2,350	2,944	-594
⑦ 제주	26	2,768 (0.8%)	1	4,232	2,102	2,833	-731
지 사 계	388 (22.4%)	62,064 (18.7%)	56 (32.6%)	42,326 (29.8%)	42,526 (18.0%)	46,455 (20.3%)	-3,929 (-57.2%)
사업부계	1,344 (77.6%)	270,349 (81.3%)	119 (67.4%)	99,494 (70.2%)	193,171 (82.0%)	182,371 (79.7%)	10,800 (157.2%)
계	1,733	332,413 (100%)	175	141,820	235,697	228,826	6,871

※ 사업부(9개) : 서울남, 서울북, 인천, 경기, 충남, 전남, 대구, 경남, 부산

